

01 기획특집 I

전자 미디어 시대의 심각한 현실

정보 전달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그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짚어 본다.

02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징표인 하나님의 선물,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만큼 신속히 영적 성장을 이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II

미디어와 신앙생활

디지털 미디어가 사람의 마음은 물론, 신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뜻을 깨달아 깨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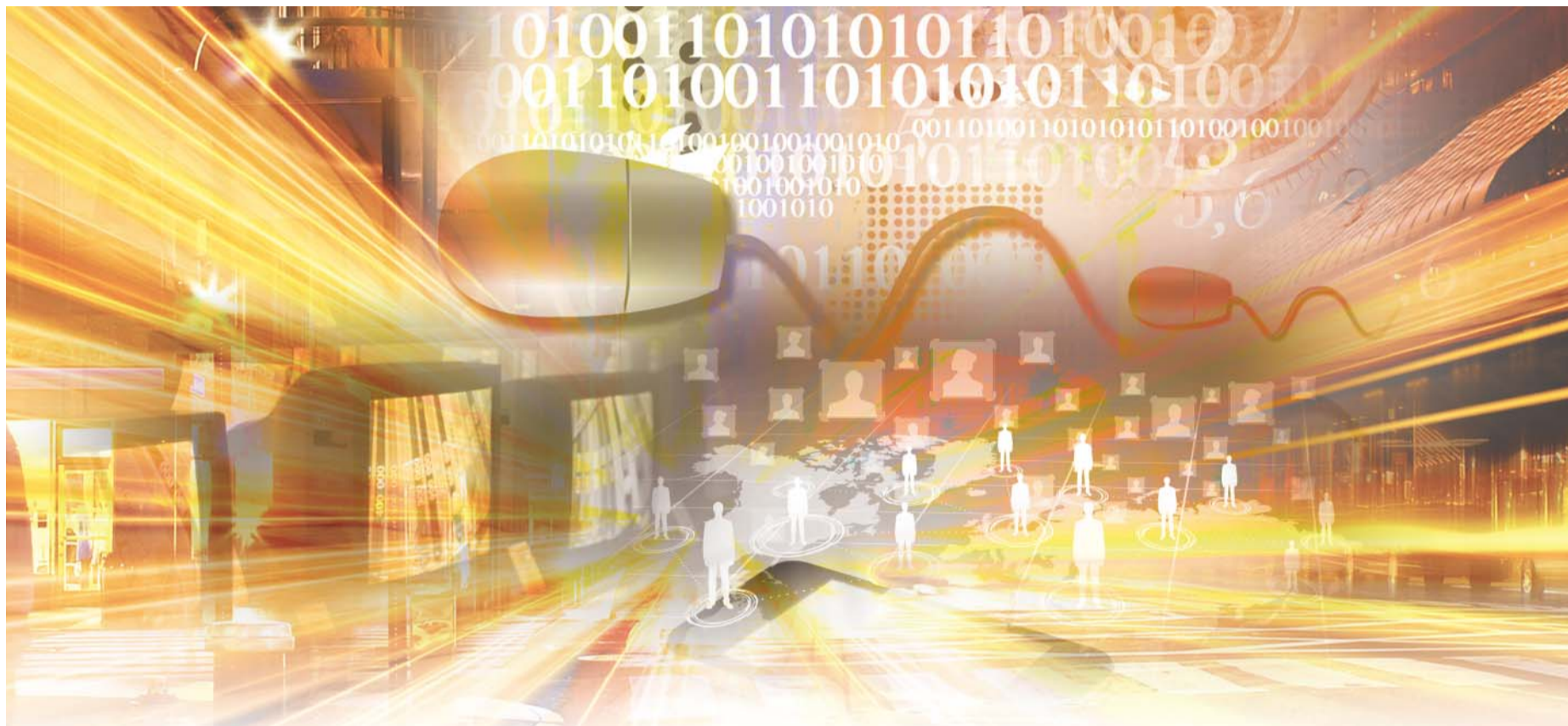
04 교회소식

지령 600호 맞은 만민뉴스

1987년 만민중앙소식으로 창간, 29개 언어로 발간되는 선교지 만민뉴스가 지령 600호를 맞아 은혜와 간증이 넘친다.

만민뉴스

제600호 2013년 9월 2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전자 미디어 무엇이 문제인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끄시며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꿈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어둠으로 가득해 참혹하기 그지없는 더 깊은 지옥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전자 미디어의 발달과 마지막 때 징조

특히, 전자 미디어는 정보 전달이라는 미명하에 화려한 볼거리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끊임없이 죄를 붙여넣고 있습니다. 처음 접할 때에는 거부감을 느끼다가도 뮤직비디오, 드라마, 영화 등을 반복 시청하면서 처음 가진 거부감이 서서히 중화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점차 죄에 대해 관대해집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혼전 성관계, 동거, 불륜, 이혼, 낙태, 동성연애 등에 대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면서 대중의 인식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이은 무선 인터넷의 발달은 시청자들을 사단의 용단 폭격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내용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해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면관계상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중문화에 침투

해 있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문양, 숨겨진 메시지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잘 팔리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성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최첨단 기술과 볼거리로 무장해 시청자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이용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론들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그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전파됩니다. 자살, 살인, 음행 등 구원받지 못할 죄를 미화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소위 666표라 불리는 RFID(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로 송신하는 장치) 이식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한 각종 범죄로 들끓고 있습니다.

위험한 영화? 위험한 아이들!

2013년 7월, 언론에 보도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죽인 뒤, 그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흔적을 없애기 위해 공업용 커틀러 문구점에서 구입했습니다. 그 칼로 시신의 살점을 도려내어 버린 후, 일부 뼈만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해 오다 피해자의 실종을 수사하던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었습니다.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전 메달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분노를 느끼지도 못했고 아주 짧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이 피 비릿 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위의 글은 그가 사용하는 SNS 계정에 남긴 글입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멀쩡한 정신으로 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작업하고 있다', '여긴 지옥이다', '지옥 가서 벌 받겠지' 등의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16차례나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전과도 없는 10대의 남학생이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맨 정신으로 이 같은 혐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경찰조차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에 관한 뉴스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학생이었기에 그런 일을 벌였는지. 언론은 그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다 할 특이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놀라게도 친구들을 챙기는 착한 남학생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의 범죄 수법에 영향을 주었다는 영화가 회자되면서 네티즌들은 다시 들썩였습니다. 동유럽에 놀러간 여행객들이 비밀클럽에 의해 납치돼 고문과 살해를 당하는 내용의 영화 <호스텔>. 수익과 오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10대 남학생에게 모방 범죄, 다시 말해 살인 및 사체 유기를 위한 학습 자료가 된 것입니다.

(3면에 이어집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1~22)

구원의 징표인 하나님의 선물, 성령

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기도에 힘썼지요.

그러던 중 오순절날이 이르러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다 놀라 기이히 여겼지요. 어떤 이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것이라(을 2:28)고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말합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음을 외쳤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삼천 명이나 됐습니다(행 2:14~41).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곧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은 물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2. 구원의 징표인 하나님의 선물, 성령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받았다고 인치시면 그 보증으로 마음 안에 성령을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

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성도들을 보호하고 돕는 ‘성령’을 뜻합니다. 또한 진리의 영인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고전 2:10). 무엇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죄와 불법을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진리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죽은 영이 살아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지요.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마치 가정교사처럼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야 최상의 엔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아서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신속히 영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영을 낳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히 12:4)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살전 5:22).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요삼 1:2)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됨으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좇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버리려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 죄와의 싸움을 그쳐 버

리는 경우가 많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오히려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 다시 세상과 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산다면 점차 성령이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 해도 안주해 변화되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계 3:1). 그러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4. 생명의 씨와 성령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자 놀라운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잉태한 후 태아가 6개월이 될 때 영을 주시되 그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심장의 한 세포 안에 있는 핵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생명의 씨가 싹이 터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순종하는 만큼 성령의 소욕을 좇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누구든지 보혜사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영이 쑥쑥 성장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권능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스마트 시대의 불편한 진실

얼마 전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자 믿기 힘들 정도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까지도 쉽게 접하는 스마트폰의 기능에는 전화받고 사진 찍고 카카오톡과 같은 무료 문자 메시지 서비스 외에 가끔 뉴스 정도 보는 어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콘텐츠가 즐비합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가 어려운 음란물과 폭력물들이 노골적으로 영화, 드라마, 게임에 문화산업이라는 포장 아래 침투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차마 봐서는 안 될 내용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24시간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이 돼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방송통신과 기기의 융합으로 인해 스마트폰 하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도 더불어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편리하고 빠른 정보를 주는 장점을 내세우며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이면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심지어 운전 중에도, 심하게는 집에 들어와 가족끼리 식사할 때도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간순간 스마트폰 알림음 환청이 들린다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들여다보면 운동장은

텅텅 비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은 채로 스마트폰을 꺼내어 게임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SNS로 왕따를 시키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언어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도 몸만 곁에 있을 뿐 손에 든 스마트폰이 각각의 눈과 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상대가 읽었는지 습관적으로 확인하고 답장이 늦어지면 답답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오해하고 쉽게 싸웁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하루라도 핸드폰을 두고 나온 날이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중독 증세가 심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 구조가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 편리하고 빠른 정보를 주는 스마트폰, 무엇이 문제인가?

‘팝콘 브레인’이란 팝콘이 빠르게 튀어 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디지털 기기의 즉각적이고 강한 정보에만 반응할 뿐 사람의 감정이나 현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뇌 구조를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은 항상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고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보다 느린 현실 세계의 속도가 뇌에 자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무뎠어지고 웬만한 일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뇌에서 생각 중추를 책임지는 회백질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뇌 구조 자체가 바뀐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아직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팝콘 브레인이 형성된 어린이의 경우, 깜빡거리는 불빛에 맞춰 손뼉을 치는 실험에서 정상인 아이들에 비해 늦은 반

응 속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주의집중력장애(ADHD), 충동조절 능력 저하, 대인관계 미숙 혹은 불안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은 좌뇌의 발달만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뇌의 발달이 잘되지 않아 ‘우뇌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좌뇌는 논리, 추리력, 언어 등을 책임지고 우뇌는 창의성, 사회성, 집중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우뇌의 발달을 방해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뇌와 좌뇌가 골고루 발달하지 못하면 균형이 깨지며 정보처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우뇌증후군’이 심해질 경우 ‘틱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 나머지

지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전날 먹은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든지, 찬양을 할 때도 화면에 가사가 나오지 않으면 온전히 부를 줄 아는 곡이 거의 없다든지, 손 글씨보다 키보드나 휴대폰 문자판이 편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장기간 사용은 시력저하는 물론 눈에 통증을 유발하는 등 ‘시력피로종합증’ 현상을 초래하며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등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더욱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웹툰이나 게임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밝은 빛에 노출돼 뇌가 각성하게 됩니다. 결국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 신부단장에 힘써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단언하건대 미디어를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각종 전자 미디어와 죄악으로 가득한 콘텐츠에 가랑비에 옷 젖듯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 부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독된다면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스마트폰 해킹 범죄는 이러한 현실의 반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7년 환난 동안 온 천하를 주관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각 나라와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해 세계를 장악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초대형 컴퓨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그

리스도의 세력은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주관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장악해 나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 동안 적그리스도는 세상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근본의 소리로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구

원받은 성도들의 천국 집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7년 혼인잔치를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섭리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서동원
GCN방송 기획제작부 특별기획팀 팀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학사 졸업
(문예창작 전공, 영화 부전공)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매체학 석사 졸업
(영상미디어 전공)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학 박사 수료
(영상학 전공)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9월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9.22-9.28
September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 천국 14-18
- 마음발을 개간하자 3-7
- 믿음의 분량 16-20
- 창세기 강해 84-88
- 요한일서 강해 32-36
- 마음

GCN TV 설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형질 7-8 (이수진 목사)
- 내가 시행하리니 1-3 (이수진 목사)
- 주도면밀한 삶 (이미영 목사)
- 새 예루살렘 2 (신동초 목사)
-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신수일 집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4 (정구영 목사)

간증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26, 28, 29, 32, 36, 37
- GCN 간증스페셜 2-8, 15, 16
- 만민의 간증 8, 13-16

해외성회 시리즈

- 뉴욕연합대성회 3
- 이스라엘연합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찬양과 경배 (3) 62-66, 79, 80
- GCN 금요찬양 스페셜 2-9
- 만민 찬양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 사랑, 만민뉴스 600호를 맞다

유엔 공용어를 비롯 29개 언어로 발간



만민뉴스 창간호(왼쪽)와 제호가 변경된 지령 400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땅 끝까지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만민뉴스 한국어판이 지령 600호를 맞았다.

1987년 5월 17일 창간된 우리 교회 선교지 '만민중앙소식'은 월간, 격주간으로 발행하다가 2009년 10월,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아 전 세계 만민을 위한 선교지로 거듭나면서 '만민뉴스'로 제호를 바꾸어 매주 발간하고 있다.

현재 29개 언어로 발간되는 만민뉴스는 생명력 있는 양질의 콘텐츠로 독자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 주고 있다. 국내외 선교 소식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신앙상담 및 믿음을 더해 주는 기획특집 기사,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전 세계 만민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은혜로운 간증이 고루 담겨 애독자가 늘고 있다.

김영선 장로(77)는 "만민뉴스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소중한 말씀과 간증이기에 틈틈이 꺼내어 읽으면서 주변 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라고 한다. 김종민 집사(33)는 "하나님 권능을, 주님의 선과 사랑을 아름다운 색채와 진실의 언어로 전하는 만민뉴스는 제 영혼에 밝은 빛을 전해 줍니다."라고 말한다.

한 장의 만민뉴스를 읽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은 성도도 수없이 많다. 그 중에 안준성 집사(45)는 "만민뉴스에 중풍을 치료받은 분의 간증을 읽은 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7년간 중풍으로 고생하시던 친정어머니는 당회장님 기도로 치료받아 지팡이 없이 걷게 됐지요."라고 간증했다. 우현하 집사(48)는 "길에 떨어져 있는 만민뉴스를 읽고 부흥성회에 참석해 당회장님의 영적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로 말씀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이 됐습니다."라고 했다.

매주 발간되는 만민뉴스 한국어판은 영어, 중국어(번체·간체)로 번역돼 한 주 후에 발간하고 있다. 이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 따갈로그어는 월 2회, 일어, 불어, 비사야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인니어, 태국어, 에스토니아어, 히브리어, 우크라이나어, 우르두어, 베트남어, 네덜란드어, 불가리아어, 핀란드어, 덴마크어는 월 1회 발간된다.

또한 타밀어와 힌디어는 매달 인도 현지에서 번역, 발간하고 있다. 네팔어와 독일어, 싱할라어는 현지 사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며, 미얀마어판도 추가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만민뉴스(www.manminnews.com)를 통해 29개 언어 만민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국내외 선교 현지에서는 『인쇄용 PDF』를 다운로드해 필요한 언어를 원하는 부수대로 인쇄, 보급할 수 있다.

현재 광주만민교회(담임 박형렬 목사)에서 만민뉴스 제작비를 일부 후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매주 만민뉴스 제작 및 보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는 많은 손길이 있다.

600호를 발간하기까지 친히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독자들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하며 후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 삶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스라엘_리나 다박

저는 '만민뉴스'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많은 사역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사역은 전 세계 곳곳에 뿌려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를 다룬 '생명의 말씀'은 실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상담' 등 기획기사들을 통해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지요.

저는 신앙생활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을 만민뉴스를 통해 보고 배우며, 그것들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주었습니다.

특히, '간증'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재록 박사와 만민중앙교회 사역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민뉴스'가 제 삶에 필수 영양소가 됐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열쇠입니다”



인도네시아_자바르 H 시나이트 선교사

저희 교회 베니 세플레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일을 하다가 그만 대형 컨테이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져 잠을 잘 수 없었고, 매일 밤 열로 시달렸으며 몸무게는 10kg이나 줄었지요.

2013년 7월, 집사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흉부 내상으로 약 1리터의 액체가 차 있다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만민뉴스'를 구독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했지요.

7월 14일 주일, 집사님은 제게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았습다(행 19:11~12). 한 주 후 병원 진단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의사가 "액체가 전혀 없습니다. 단 1밀리리터도요. 깨끗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초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41)577-7077, 010-3447-707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881-7000, 010-3030-7025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667-4721, 010-2781-2073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이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총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포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